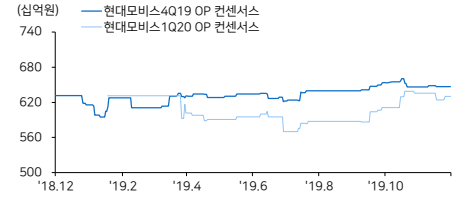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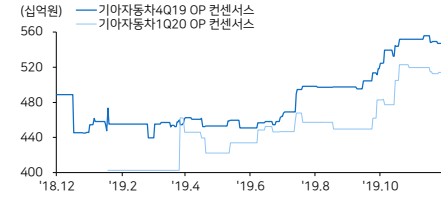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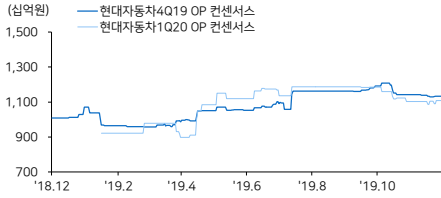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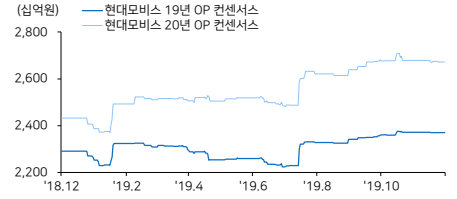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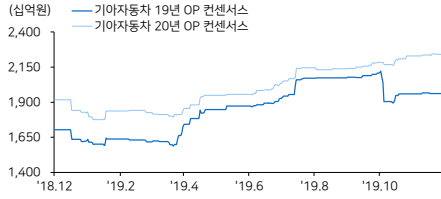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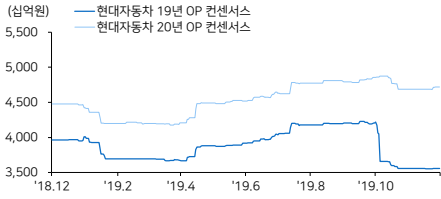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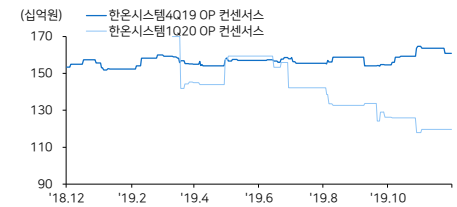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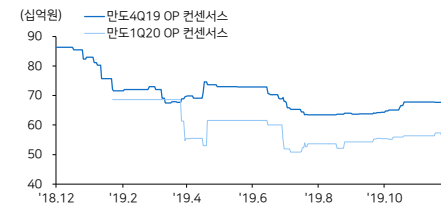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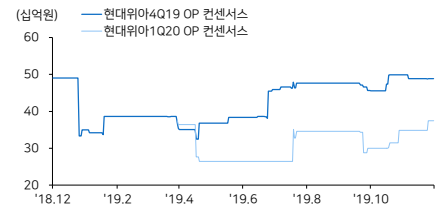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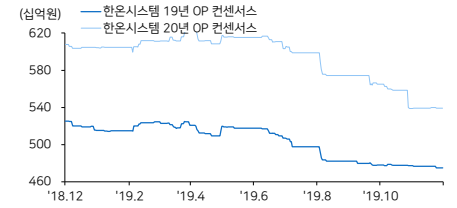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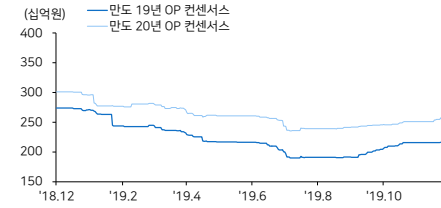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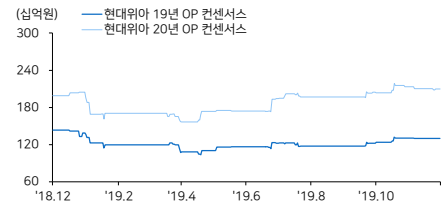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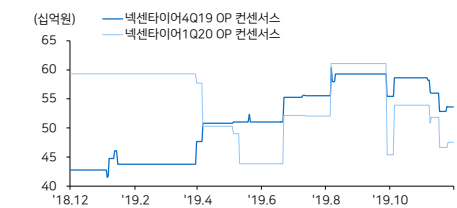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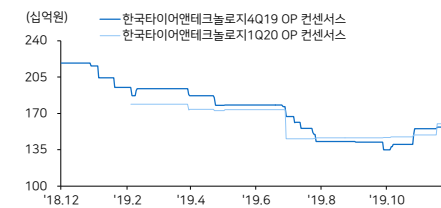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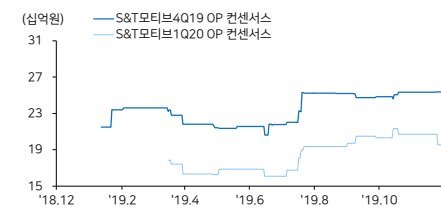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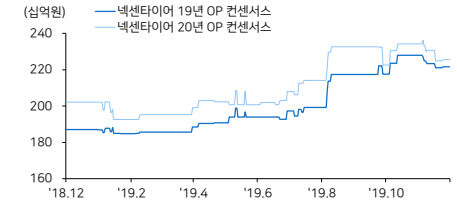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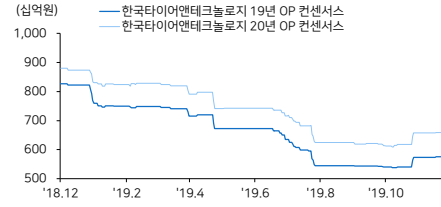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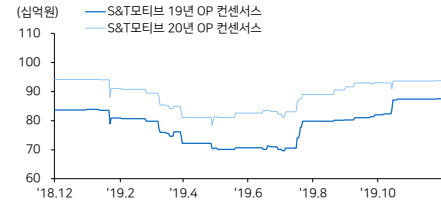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카카오와 손잡은 기아차 K5 음성인식, 똑똑해졌다 (중앙일보)

현대차그룹과 음성인식 프로젝트를 진행해 매니저는 "단어 인식은 문제없다. 다만 차량 작동 모듈로 연결되는 과정은 시간/비용이 드는 일"이라며 "1~2년 내에 카카오 미니가 알아듣는 수준의 음성 인식 기능을 현대차와 구현할 것"이라고 밝힘. <https://bit.ly/34d8uJm>

서울시-현대차, GBC 공공기어 1.7조 이행협약 체결 (머니투데이)

서울시와 현대차가 삼성중 GBC 신축사업에 따른 1조7500억원 규모의 공공기어 계획 이행 협약을 체결. 이는 역대 최고치. 이를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잠실수경지정 리모델링 등 9개 사업이 진행됨. <https://bit.ly/2E9SUDC>

전기차 9년 · 수소전기차 4년 타면 차값 본전 뺀다 (아시아경제)

'9년 vs 4년'. 2030년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시장을 양분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 전기차와 수소차의 경제성을 돕는 정부의 휘발유 차량과 비교한 수치. 이는 코나와 넥소를 기준으로 동급 휘발유차 간 총소유비용의 동등성을 확보하는 시기를 나타낸 것. <https://bit.ly/2LQJVvc>

자동차 수요 내년에도 현상 유지... '성장에도 1% 안쪽' (중앙일보)

올해 예상치를 넘어 부진에 시달린 세계 자동차 시장은 내년에도 '현상 유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 전망이 나올. 한국 자동차 산업은 현대 · 기아차는 소폭 반등하겠지만, 나머지 외자계 완성차 업체는 부진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https://bit.ly/36taG09>

박항서만큼 베트남은 코리아 열풍...현대차 판매량 신기록 (노컷뉴스)

현대자동차의 베트남 현지 판매량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일본 기업과의 한판 승부를 선언한 현대차는 베트남에선 일찌감치 현지화 전략을 펼쳐 효과를 보고 있음. <https://bit.ly/2PJf2N>

조현범, 구속기소에 3세경영 '적신향'...방어노선 한국타이어 (디지털타임스)

올해 3월부터 본격 '3세 경영체제'로 전환을 꾀한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막구들이 드리우고 있음. 조양래 회장의 차남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하청업체에서 남품을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https://bit.ly/2RSBfP>

테슬라 '모델3', 판매 첫달 전기차 등록대수 1위 (데일리안)

모델3가 신차효과 등에 힘입어 국내 판매 첫달인 11월 전기차 등록대수 1위에 오름.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달 모델3의 신차 등록대수는 1207대로 국내 전기차 중 1위를 기록. 2위는 현대차 코나EV, 3위는 한국GM 볼트EV. <https://bit.ly/2skxVvi>

중국 올해 신차 판매, 전년비 8% 감소 전망...2년 연속 역성장 (이투데이)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의 연간 신차 판매가 2년 연속 역성장을 기록할 전망. 중국자동차공업협회는 이날 올해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약 8% 감소할 것으로 추산. 이대로라면 연간 판매 실적은 2년 연속 마이너스(-). <https://bit.ly/2PgB2xq>

Compliance Notice

본 조차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차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는 본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차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